

근원CPI 컨센 상회에도 유가 숨고르기에 3대지수 반등

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yunjeong.kim@ls-sec.co.kr

유가 진정에 증시 반등, BofA 주식형펀드 자금 유출 경고

- 미 증시는 DOW +0.98%, S&P500 +0.86%, NASDAQ +0.96% 상승. 기술주, 산업재, 통신서비스 등 업종 전반 강세, 유틸리티, 헬스케어는 하락
- 유가 하락에 성장주 중심 강세. 빅테크 및 반도체 상승(SOX, +1.8%), 반면 S/W·보안 등은 약세 보이며 기술주 내 엇갈림
- 한편 BofA 는 국제금리 상승에 대한 시장과 정책당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최근 미 주식형펀드 자금유출 규모 확대, 증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 경고. AI 투자 우려도 원인으로 지적, 최근 3년간 AI 에 \$1.5 조가 투입되었음에도 생산성 향상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

근원 CPI 예상치 웃돌며 더 높아진 금리 인상 가능성

- 8 월 CPI MoM +0.4% 전월비 상승·컨센 부합, YoY 3.4% 전월 동일·컨센 부합. 근원 CPI 는 MoM 0.3% 전월·컨센 상회, YoY 2.4% 전월비 하락·컨센 부합
- 9 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47.8로 전월·컨센 하회. 1년 기대인플레이 4.6%, 5년 기대인플레이 3.4% 전월·컨센 상회
- CME FedWatch 9 월 금리인상 전망 87.3% 유력, 내년 6 월까지 인상 횟수도 세차례로 추가 인상 가능성 오픈

WTI 9 거래일만에 상승흐름 제동, 다만 여전한 원유 공급 차질 우려

- 국제유가 하락 WTI \$100.0(-2.4%), Brent \$104.6(-2.8%) 중동국가 외무장관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를 놓고 이란과 임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FT 보도에 하락세 전환. 다만 후티반군이 모카항에 이어 페림섬 장악, 여전히 \$100대 수준 유지
- 산유국 에너지시설 공격 피해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 우려 지속. 사우디의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서횡단 송유관 펌프장이 손상되었다는 보도. 한편, IEA 는 사우디 8 월 원유공급량 MoM -230만 bpd 감소, 30년래 가장 낮은 수준 기록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DELL	델테크놀로지	+12.0%	오라클(-1.7%)의 Capex 가이드선스 상향, 마이크로소프트(+0.7%)의 컴퓨팅 용량 3배 확대 등 빅테크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지속 기대감에 추가 급등. 앞서 9일 골드만삭스 컨퍼런스에서 AI 서버 수주 호조 밝힌 바 있음. RBC 캐피털은 AI 엔터프라이즈 수요 및 컴퓨팅 현대화 등을 근거로 투자의견 'Outperform', 목표주가 \$640로 커버리지 개시
MU	마이크론	-0.2%	대만 현지 직원 대상 FY26 월급 35~68개월 치 성과급 지급 방침 발표에도 노조의 영업이익 15% 보너스 풀 요구 및 파업 위협이 이어지며 추가 보합세 마감. 노조측은 삼성전자·SK하이닉스 성과급 제도 대비 불투명한 인센티브 제도 지적
NVO	노보노디스크	-2.1%	모건스탠리의 투자의견 하향 조정 여파로 주가 하락 마감. 비만치료제 특허 만료 임박 및 중기 성장성 둔화 가능성 우려에 투자의견 'Equal-Weight'에서 'Underweight'로 하향 조정, 목표주가는 \$40로 유지
GME	게임스탑	+3.7%	라이언 코언 CEO의 장내 매수(100만 주, 약 \$20.37M 규모, 평단가 \$20.38)를 통한 지분율 확대(약 8.5%) 소식에 추가 강세
SNDK	샌디스크	-3.5%	오라클의 클라우드 인프라 호실적에도 불구하고, 차익 실현 및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하락 마감. 한편 부사장 겸 CTO는 9월 3일 5,132주(약 \$7.9M) 매도. 6월 4일 채택된 '10b5-1' 사전매매 계획에 따른 기계적 집행